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7.6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unlee@hanafn.com

메타는 뭘 판다는 걸까? 클라우드 진출 소동을 읽는 AI 공급망

메타는 빌린 데이터센터를 되팔 수 있을까?

- 메타의 데이터센터 임대 사업 진출 가능성에 대한 소식은 AI 컴퓨팅이 “훈련용”과 “추론용” 두 개의 시장으로 갈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시와 표준약관에 따르면 메타는 코어워브, 알파벳(구글) 등에서 빌린 데이터센터 용량을 제3자에게 되팔거나 재임대하는 데 계약상 제약이 있다. 메타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자체 데이터센터의 잉여분일 가능성이 높다. 잉여분은 상대적으로 구형 세대일 가능성이 높다. 추론은 이미 학습된 모델을 구동하기 때문에 훈련 대비 칩 세대에 덜 민감하다. 시장이 나뉜 이유는 프론티어 경쟁이 만드는 최신 칩 수요와 공급 속도를 결정하는 첨단 패키징 병목에 있다. TSMC의 가격 결정력 강화와 투자 유인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 메타의 신사업 진출 가능성은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의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다. 대형 경쟁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코어워브와 메타의 계약 공시(2025년 9월 30일, 8-K)에 따르면 메타는 임차한 인프라를 판매하는 데 제약사항이 있다. 서비스 사용 권한을 고객 자신의 사업 운영 목적으로 한정한다는 내용과 코어워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고객이 서비스를 복사, 대여, 리스, 배포하거나 계약상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설명이 있다. 메타가 코어워브에서 빌린 용량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이 조항에 걸린다.
- 알파벳도 방향은 동일하다. 2025년 8월 메타와 구글은 6년간 1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계약을 맺고, 구글 데이터센터의 엔비디아 GPU 접근권을 확보했다. 계약의 원문은 비공개지만, 구글 클라우드 표준 서비스 약관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 재판매, 이전, 배포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메타와 구글의 계약을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클라우드 사업자가 자기 인프라를 잠재적 경쟁자가 도매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 메타는 네오클라우드와 알파벳 등에서 용량을 빌리는 동시에 자체 용량을 판매하려 한다. 최근 계약한 데이터센터 임차분의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면 자체 보유분에서 판매해야 한다. 메타는 공격적인 자본지출을 예고하고 초지능 개발을 목표로 하겠다고 제시한 상태다. 자체 보유분 중 최신 세대는 프론티어 모델 개발에 우선 배정할 것이다. 외부 판매가 가능한 물량은 한두 세대 지난 구형 클러스터일 가능성이 높다. AI 칩의 세대교체 주기가 1년 수준으로 단축되면서 직전 세대 훈련용 자산이 빠르게 구형으로 바뀌고 있다.
- 구형 용량의 수요처는 추론 시장일 것이다. 추론은 이미 학습된 모델을 서비스로 구동하는 워크로드다. 칩 세대에 덜 민감하다. 스페이스X가 엔트로픽에 임대한 콜로서스 1은 신형 GB200뿐만 아니라 H100, H200 등 이전 세대 모델들이 섞여 있다. xAI가 개발하는 Grok은 최신 제품이 있는 콜로서스 2에서 훈련한다. AI 특화 기업인 엔트로픽이 구형 GPU가 섞인 콜로서스 1을 계약한 이유에는 부족한 컴퓨팅 용량도 있겠지만, 추론 시장에선 최신 훈련용 클러스터가 아니더라도 대규모 혼합 세대 용량이 소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메타의 잉여 용량 판매는 공급 과잉의 신호라기보다 최신 용량 부족과 구형 용량 재배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이 두 계층으로 나뉘기 위해선 구형 용량을 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수요가 있어야 하며, 최신 훈련용 데이터센터 용량의 부족이 지속되어야 한다. 단순히 수요만 많으면 안 된다. 최상위 고객들이 여전히 최신 세대 클러스터를 우선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유지돼야 한다.
- 우리는 6월 15일 발간한 “엔비디아 주주 필독: 젠슨 황이 한국에 온 이유”를 통해 엔비디아는 고객이 내릴 수 없는 러닝머신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루빈이 토큰 단가를 1/10으로 줄이는 순간 구세대 장비의 토큰 생산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TCO 측면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신제품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공개가 아닌 박자 선언이라고 했다. 세대 교체 속도 조절을 통해 업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 한다고 했다. 메타가 구형 자원을 판매하면서도 최신형 제품을 쓰려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 공급 속도의 상한은 TSMC의 첨단 패키징 용량이다. TSMC는 실적 발표에서 2024년과 2025년 CoWoS 용량을 각각 두 배로 확대했음에도 고객 수요가 공급 능력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시장에서 병목 소유자의 가격 결정력은 강화된다. TSMC CEO는 2026년 6월 주주총회에서 가격 인상 의사를 밝혔다. 강한 수요가 가격 결정력을 만들고, 가격 결정력은 이익을 확대한다. 현재 강력한 수요가 유지된다면 개선된 이익은 증설 투자에 확신을 제공할 것이다.
-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도 자본지출 전망을 상향할 여지가 있다. 확정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7월 3일 발간한 “엔트로픽, 알파벳은 스페이스X에게 임대사기를 당한걸까?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릴 Capex 사이클”을 통해 반도체 생산의 병목 현상과 메모리 및 파운드리 기업들의 예상보다 강한 증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거대 반도체 제조 기업들의 자본지출 확대는 장비 기업들의 실적에 긍정적일 것이다. 미국 반도체 장비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메타와 코어위브의 계약

Exhibit 10.1

CERTAIN CONFIDENTI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DOCUMENT, MARKED BY [*], HAS BEEN OMITTED BECAUSE THE REGISTRANT HAS DETERMINED THAT THE INFORMATION (I) IS NOT MATERIAL AND (II) IS THE TYPE OF INFORMATION THAT THE REGISTRANT TREATS AS PRIVATE OR CONFIDENTIAL.

Master Services Agreement

Customer Full Legal Name:	Meta Platforms, Inc.
Customer Address:	1 Hacker Way, Menlo Park, CA 94025

This Master Services Agreement, including all Exhibits attached hereto (“**Agreement**”), is between CoreWeave, Inc., a Delaware corporation, (“**CoreWeave**”) and the customer named above and its Affiliates (collectively, “**Customer**”). This Agreement is effective as of the last date beneath the Parties’ signatures below (“**Effective Date**”). CoreWeave and Customer will each be referred to individually as a “**Party**” and together as the “**Parties**”.

자료: SEC, 하나증권

메타와 코어위브의 계약의 제약사항: 제 3장 C항목

- c. **Restrictions.** In addition to the restrictions set forth in the AUP,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CoreWeave, Customer shall not: (i) decipher, decompile, disassemble, reverse-engineer or otherwise attempt to derive any source code of the Services; (ii) modify, translate, or otherwise create derivative works of any part of the Services; (iii) copy, rent, lease, or distribute the Services, or otherwise transfer any of the rights that Customer receives hereunder; (iv) use the Services in a manner that compromises the integrity of Services or the confidentiality of other users of the Service; (v) input, upload, transmit, or otherwise provide to or through the Services, any information or materials that are unlawful, injurious or that contain, transmit, or activate any Malicious Code; or (vi) use the Service or Documentation in any manner or for any purpose that infringes, misappropriates, or otherwise violates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any person, or that violates any Applicable Law.

자료: SEC, 하나증권

알파벳(구글)의 표준 약관 중 서비스별 특약

6. Compute Engine.

a. **Future Reservations.** Customer may request a future reservation, as described at <https://cloud.google.com/compute/docs/future-reservations> (or a successor URL), by following the instructions at that URL. Google will determine in its sole discretion whether to approve each future reservation request, and approval wi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or delayed. Reserved VMs may not be transferred or shared amongst multiple customers by Customer (if the Customer is a reseller or supplier of Google Cloud Platform).

b. **Capacity Adjustments.** Google reserves the right to (1) deploy Services for its other customers in the same Region(s) as any Compute Engine capacity made available to Customer and (2) notwithstanding the initial Region identified for any Compute Engine capacity made available to Customer, transfer all or a portion of that capacity from one Region to another Region, provided that, in each case of (1)-(2), such actions do not delay delivery of the applicable capacity or adversely impact its cost, functionality, features, performance, security, or availability.

자료: SEC, 하나증권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483.2	25,832.7	52,900.1	4,043.6	2,792.6
1W (%)	1.8	2.1	2.0	0.4	0.2

지수	1W (%)	1M (%)	3M (%)	6M (%)	1Y (%)	YTD (%)
S&P 500	1.8	1.1	13.3	8.0	19.5	9.5
NASDAQ	2.1	1.0	17.5	9.5	25.5	11.0
Dow	2.0	4.0	13.0	7.0	18.0	10.0
상해종합지수	0.4	0.5	4.0	-1.0	16.0	2.0
심천종합지수	0.2	0.5	11.0	7.0	34.0	10.0

주) 7월 3일 종가 기준 / 미국 지수는 7월 2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주(6월 29일~7월 3일) 리뷰: 예상을 하회한 고용지표**

- 지난주 미국증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했다. 3대 주요지수 수익률은 다우지수 +2%, S&P 500 +1.8%, 나스닥 +2.1% 등이다.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1.1% 상승했다.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은 0.5% 하락했다. 시장참여자들은 성장주를 가치주보다 선호했다. 성장주로 구성된 ETF(VUG)와 가치주 ETF(VTV)의 수익률은 +3.3%, +0.4%다. 변동성 지수(VIX)는 12.3% 급락했다. M7의 수익률이 비M7보다 양호했다. M7으로 구성된 ETF(MAGS)는 5.7%, 비M7 ETF(XMAG)는 +0.2%다.
- 현지시각 2일 발표한 미국의 고용지표는 예상을 하회했다. 시장참여자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을 다소 완화했을 것이다. 6월 비농업 고용지수는 57,000 건으로 예상치(114,000 건)와 이전치(129,000 건)를 하회했다. 시간당 임금은 MoM +0.3%로 예상 및 전월치 수준이었다. 실업률은 4.2%로 예상 및 이전치인 4.3%를 하회했다. 일부 경제 가능 인구가 구직 시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전월 고용도 합산 7.4만 명 하향 수정됐다. 고용이 아직 늘고 있지만 증가 속도와 질이 약해지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근거가 약해지고 있다.
- ISM 제조업 PMI는 53.3으로 시장 전망(55.7)과 이전치(55.1)를 하회했지만 6개월 연속 확장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과 신규주문은 양호했다. 가격지수(물가)는 73으로 여전히 높지만 5월 82.1보다 약해졌다. 제조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가격으로 전가하는 것이 마무리되고 있을 여지가 크다. 지수가 약해진 이유는 생산지수가 54.3에서 52.2로 약해졌고, 공급자 배송이 60.6에서 57.4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신규주문도 56.8에서 56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이번 주 상승 상위섹터는 커뮤니케이션(+4.9%), 금융(+3.7%), 경소비재(+2.8%) 등이다.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강세는 알파벳과 메타의 강세 덕분이다. 알파벳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 메타는 데이터센터 임대 사업 진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은 카드/결제, 거래소 등의 강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섹터다. 하락 섹터는 부동산(-1.5%), 유틸리티(-1%) 에너지(-1%) 등이다. 유틸리티 섹터의 약세는 독립발전 사업자(IPP)들의 약세 영향이다(CEG -9.4%, VST -7.6%, TLN -9.8% 등). 에너지 섹터는 지정학적 위기 약화로 떨어진 유가가 약재로 작용했다.
- M7 기업들은 모두 상승했다. 애플 +8.8%, 알파벳 +6.7%, 메타 +5.9%, 마이크로소프트 +4.7%, 아마존 +4.3%, 테슬라 +3.6%, 엔비디아 +1.2%다. 현지시각 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 부품 구매 가능성이 보도됐다. 중국의 CXMT, YMTC 등으로부터 구매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애플이 두 업체로부터 칩을 구매하는 데 미국 정부의 공식 승인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안보 강경파들의 거센 반발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 미국의 반도체로 구성된 ETF(SOXX)는 4% 하락했다. 메타의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진출 소식이 악재였다. 공격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하던 메타가 남은 자원으로 신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시장에선 AI 과잉 공급에 대한 걱정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보고서를 통해 메타의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진출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수요가 강하고 성장하는 AI 인프라 사업을 통해 재정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기 sollim 해소 과정에서 메타의 인프라 사업 진출 소식이 거친 매도세를 만들었지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 이번 주(7월 6일~7월 10일) 프리뷰: SK하이닉스 ADR 상장, TSMC 6월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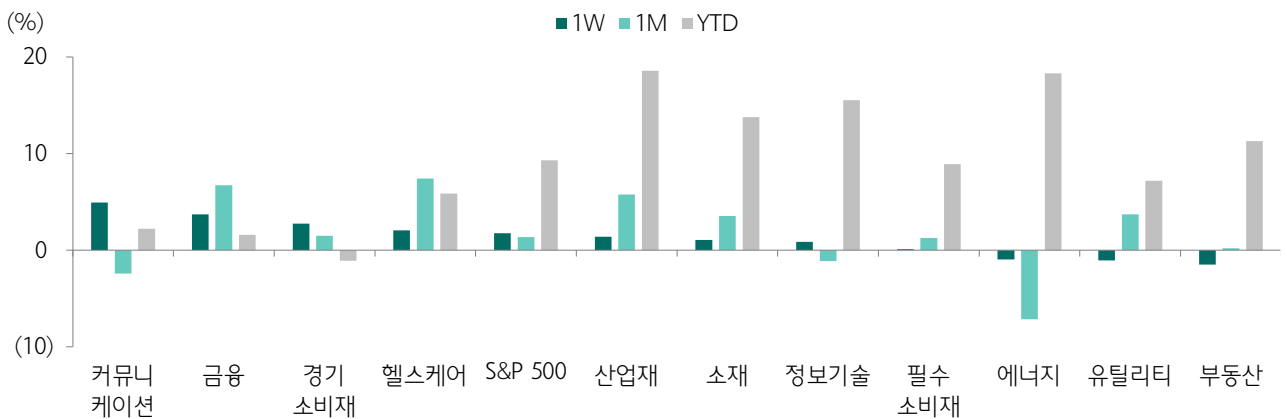
- 이번 주 시장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질 이벤트는 SK하이닉스의 ADR 상장과 TSMC의 6월 매출 등을 꼽을 수 있다.
- 현지시각 7월 10일 SK하이닉스가 ADR로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ADR 발행 방식은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최대 1,799만 주 의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 전환 비율은 본주 1주 = ADR 0.1주다. 최대 물량이 모두 발행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약 2.44% 희석될 수 있다. 조달 자금은 전액 대규모 시설투자에 사용될 것이다. 주요 사용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청주 P&T7 첨단 패키징 팹, EUV 노광장비 등 기계장치와 설비투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가 인수단에 공모대금의 약 0.5%를 기본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대 조달액 기준 계산 시 약 1.5억 달러 수준이다.
- TSMC의 6월 매출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하며, 자본지출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앤트로픽, 알파벳은 스페이스X에게 임대 사기 당한걸까(2026년 7월 3일 발간)”를 통해 메모리와 함께 파운드리도 투자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했다. 강력한 고객 수요 덕분이다. 알파벳이 브릿지 용량이 필요한 이유와 브로드컴의 단기 AI 반도체 전망이 약한 원인은 엔비디아가 TSMC의 생산용량 대부분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 2018년 호황을 누렸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과 달리 TSMC의 영업이익은 역성장한다. 당시 메모리 기업들과 달리 TSMC의 첨단 노드 주요 사용처는 모바일이었다. 2018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애플은 2019년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들기 까지 한다. 업황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당시 데이터센터는 CPU 기반의 전통 데이터센터였다.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TSMC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보다 약했을 것이다.
- TSMC의 자본지출은 2018년, 2023년 전년 대비 줄어든다. TSMC의 선단 공정 대규모 증설을 정당화할 만큼 수요 신호는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현재와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다. 현재 AI용 데이터센터는 GPU, AI용 ASIC 등이 중심이다. HBM, 첨단 패키징 등의 수요로 이어진다. TSMC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보다 지대하다. TSMC의 자본지출은 영업이익률 개선과 함께 개선되고 있다. 확정된 고객 수요가 배경이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알파벳 등 첨단 공정 제품 발주가 줄을 잇고 있다. TSMC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58%로 역대 최고였다. 수요의 강도를 보여주며, 이익 개선은 고객들이 비싼 가격을 수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SK하이닉스 및 TSMC의 호실적 등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것이다.
- 이번 주 예정된 이벤트와 경제지표 발표는 6일 6월 S&P 글로벌 종합 PMI(예상치 52.2, 이전치 52.2) / 6월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 PMI(예상치 51.3, 이전치 51.3), 7일 5월 수입/수출, 8일 6월 뉴욕 연은 1년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이전치 3.5%) / 2분기 애틀란타 GDPNow / 5월 도매재고 MoM(예상치 0.3%, 이전치 0.3%) / EIA 주간 원유 재고(이전치 -3,775,000 배럴), 9일 10년물 국채 입찰 / FOMC 의사록 공개 /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이전치 1,814,000 건) / 6월 기존 주택 매매(예상치 4,200,000, 이전치 4,170,000), 10일 30년물 국채 입찰 등이 있다.
- 연설이 예정된 주요 인물로는 7일 월러 연준이사(중립, 투표권 있음), 9일 윌리엄스 뉴욕 연은행장(비둘기, 투표권 있음) 등이 있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은 8일 LEVI, 9일 PEP / PGR / 10일 DAL / H / UNTY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7/03)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483.2	0.0	1.8	1.3	13.2	7.8	19.2	9.3
나스닥	미국	25,832.7	-0.8	2.1	0.5	17.4	9.7	25.4	11.1
다우	미국	52,900.1	1.1	2.0	4.0	13.3	7.0	18.0	10.1
STOXX600	유럽	652.8	0.7	2.7	4.8	9.4	7.8	20.6	10.2
KOSPI	한국	8,088.3	5.8	-3.8	-0.9	48.4	78.7	164.8	91.9
KOSDAQ	한국	868.4	0.2	2.0	-13.4	-17.1	-9.2	11.9	-6.2
상해종합지수	중국	4,043.6	0.4	0.4	0.4	4.2	-1.0	16.5	1.9
심천종합지수	중국	2,792.6	0.8	0.2	1.0	11.8	6.7	34.5	10.3
항테크지수	홍콩	23,350.0	1.3	1.2	-6.5	-7.0	-12.6	-2.4	-8.9
TOPIX	일본	4,064.6	1.2	2.6	2.9	11.5	14.9	43.7	19.2
니케이 225	일본	69,744.1	1.5	0.6	4.7	30.6	32.8	75.2	38.5
니프티 50	인도	24,270.9	0.4	0.9	3.9	5.7	-7.3	-4.7	-7.1
Vietnam	베트남	1,862.1	-0.2	-0.5	1.3	11.2	2.5	34.3	4.3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7.02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커뮤니케이션: 알파벳의 다우지수 편입과 메타의 데이터센터 임대 사업 진출 가능성이 부각되며 대형 플랫폼 중심 강세
- 금융: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카드/결제, 거래소 중심으로 양호한 실적 기대감 반영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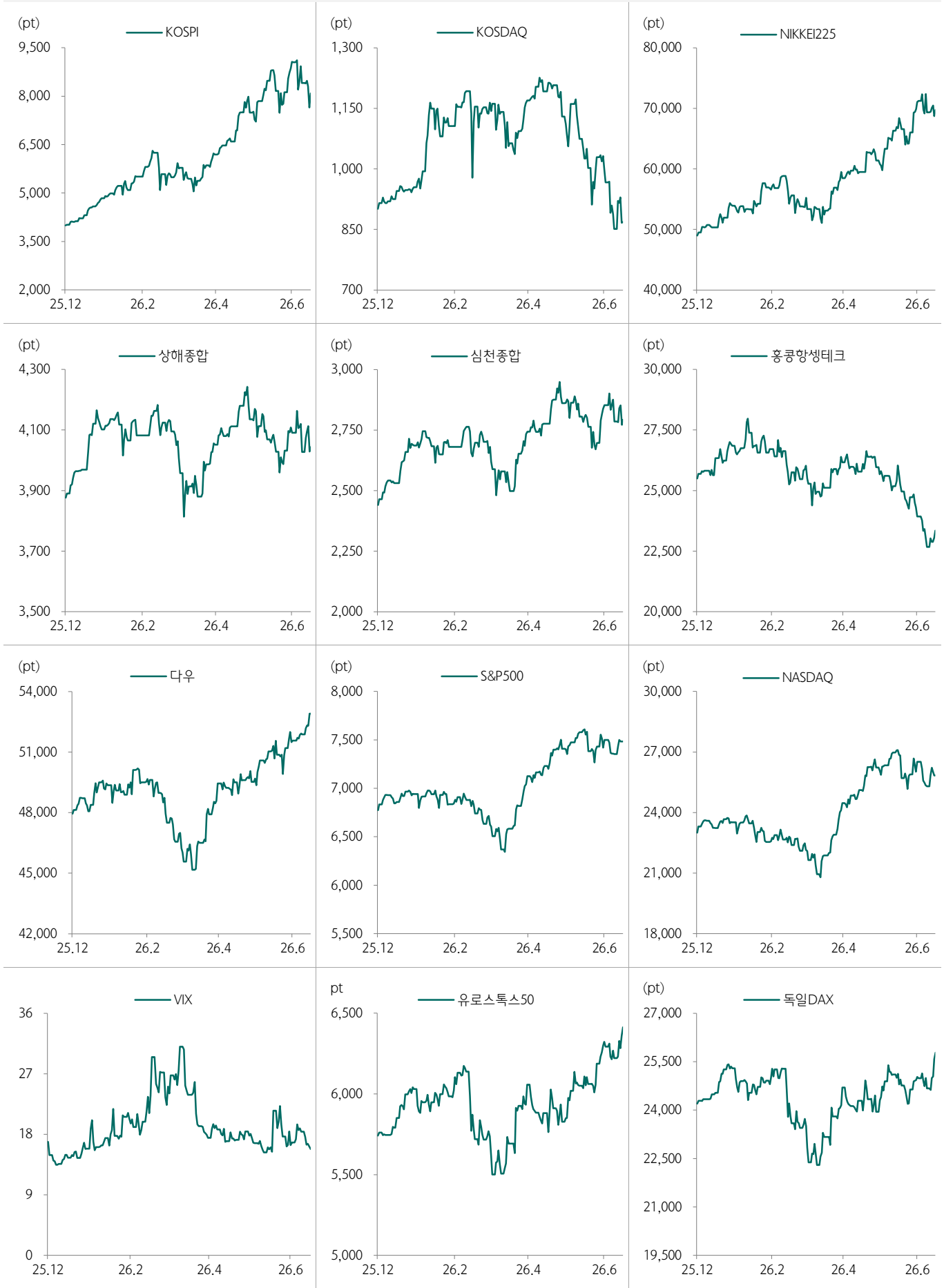
- 부동산: 성장주 반등에 따른 방어주 선호 약화로 매수 유인 감소
- 유틸리티: 씨티그룹의 CEG 목표주가 대폭 하향을 계기로 CEG, VST, TLN 등 독립발전 사업자(IPP) 중심의 급락으로 약세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6/29	<p>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 美서 D램 담합 혐의 집단소송 피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비자 14명과 중소기업 3곳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을 상대로 담합 소송 제기. 원고들은 세 기업이 2022년부터 HBM 전환을 핑계로 D램 공급을 줄여 4년간 가격을 약 700% 끌어올렸다고 주장. 애플의 대규모 제품 가격 인상이 소송의 직접적 계기. 집단소송으로 확대·승소 시 손해액의 3배 배상 가능. 제프리스 등 업계는 소송이 최소 올해 말까지는 메모리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
6/30	<p>테슬라, 구형 HW3 차량에 최신 FSD V14 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슬라가 2019년부터 적용된 하드웨어 3세대(HW3) 탑재 차량(약 350만 대)에 최신 FSD V14 라이트를 배포하기 시작.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최적화만으로 구형 차량에 도심 주행·속도 프로파일 등 최신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한 것으로, 앞서 머스크 CEO가 HW3의 성능 한계를 인정하며 하드웨어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과 달리 소프트웨어로 해결한 셈. 월가는 기존 차량 수백만 대를 AI 플랫폼으로 재편입해 FSD 구독 수익 확대와 로보택시 기반 확장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전환으로 평가.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14개월 만에 최대 일간 상승폭인 8.46% 급등
6/30	<p>로켓랩, 이리디움 80억 달러 인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켓랩이 위성통신 서비스업체 이리디움을 8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 이리디움 주주는 주당 54달러(직전 종가 대비 24.1% 프리미엄) 상당의 현금·주식을 수령하며, 소식에 이리디움 주가는 장중 22.61% 급등. 이번 인수로 로켓랩은 발사체·위성 제조 역량에 이리디움의 글로벌 L밴드 위성 네트워크·허가 주파수·250만 가입자를 더해 발사부터 통신 서비스까지 수직 계열화를 달성. 발사 능력과 위성통신을 결합한 스페이스X·스타링크와 유사한 전략으로, 거래는 2027년 중반 마무리 예정
6/30	<p>알파벳, 다우존스 지수 편입. 매그니피센트7 중 5개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파벳(GOOG)이 버라이즌을 대체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편입되며 주가 4.9% 상승. 가격가중 방식의 다우지수에서 알파벳은 고주가로 인해 즉시 가장 영향력 있는 종목 중 하나로 자리매김. 이번 편입으로 다우지수 내 매그니피센트7 종목은 엔비디아·아마존·애플·MS에 이어 5개로 확대됐으며, 디지털 광고·클라우드·AI 분야 노출도도 강화. 다우지수 추종 자산 규모는 약 1,150억 달러로 S&P500(약 20조 달러)에 비해 미미해 실질적 수급 영향은 제한적
7/1	<p>미국 6월 소비자신뢰지수 91.2 - 소폭 개선에도 예상치 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1.2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했으나 시장 예상치(94.7)를 하회. 최근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일부 완화되며 기대 지수는 74.4로 3.0포인트 상승. 반면 현재 상황 지수는 116.4로 3.0포인트 하락하며 현재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이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남. C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격 및 에너지에 대한 언급 빈도가 완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
7/2	<p>메타, AI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출범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타가 자사 AI 인프라의 잉여 컴퓨팅 자원을 외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 출범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 AWS 베드록과 유사하게 뮤즈 스파크 등 AI 모델 접근권을 제공하거나, 코어워브처럼 컴퓨팅 자원 자체를 임대하는 두 가지 방안이 검토 중. 수천억 달러를 투자한 AI 인프라 비용 일부를 회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 계획은 아직 수립 단계로 전략 변경 가능성 있음
7/2	<p>오픈AI, 미 정부에 지분 5% 제공 방안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트먼 오픈AI CEO가 트럼프 행정부와외의 초기 논의에서 미 정부에 약 5% 지분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창출하는 막대한 부를 국민과 공유하는 동시에 행정부와외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AI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치적 반발을 완화하려는 포석. 앤트로픽·구글·메타 등 주요 AI 기업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검토되고 있으나 실제 동의 여부는 불확실. 다만 논의는 아직 개념적·초기 단계이며 실현을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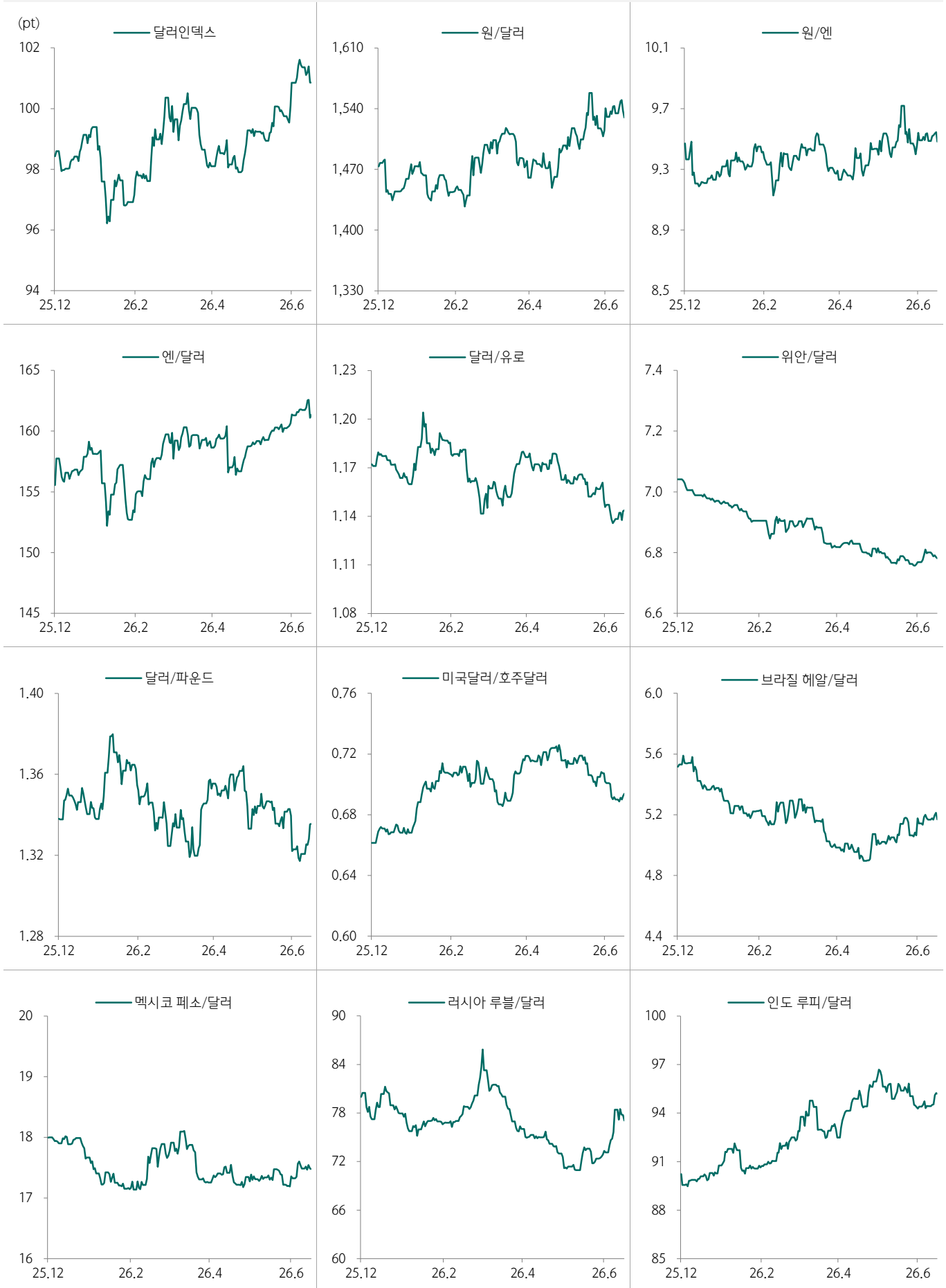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7월)				
일	화	수	목	금
		7/1	2	3
		GIS FDS		
6	7	8	9	10
		LEVI	PEP PGR	DAL H UNTY
13	14	15	16	17
FAST	JPM BAC GS WFC C	ASML JNJ MS BNY PNC MTB CAG	GE UNH NFLX STX ISRG ABT BX PLD	TRV FITB ROP RF
20	21	22	23	24
WRB DPZ	VZ BLK SCHW DHR MRSH GM NOC DHI MSCI HAL	TSLA GEV PM TXN IBM T CSX CME ELV KMI BKR NDAQ UAL	INTC MA KLAC LIN UNP HON RCL AMT AEP HSY FSLR DOW	XOM ABBV CVX AXP
27	28	29	30	31
WELL CDNS NUE BRO UHS	GOOGL MSFT V KO RTX LMT UPS MMM MDLZ TER PYPL	META ARM PG APG MCD TMO NEE BA GD SHOP EQIX NEM NOW	AAPL AMZN AMGN COP GILD VRTX BMY PWR HWM CEG DASH WBD	CL D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7/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 (예상 51.3, 이전 50.7) 6월 마켓 종합 구매관리자지수 (예상 52.2, 이전 51.5)
7/7(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수출입 (이전 327.10B, 383.00B) 5월 무역수지 (이전 -55.90B)
7/8(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3년물 국채 입찰 (이전 4.192%)
7/9(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이전 4.538%) 6월 기존주택판매 (이전 4.17M, MoM 이전 3.2%)
7/10(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에너지 기구(IEA) 월간 보고서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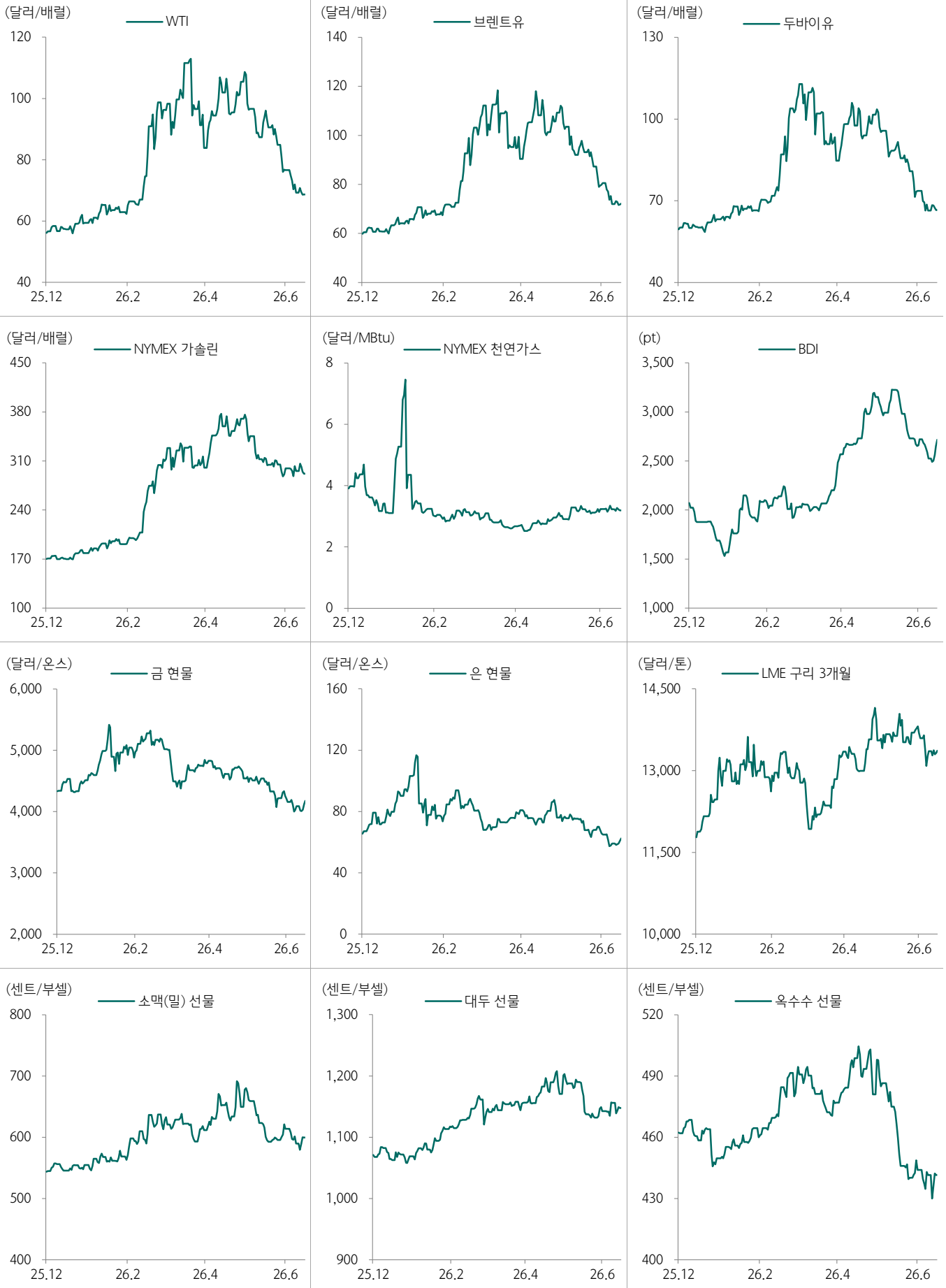
환율 추이



주요 금리 추이



주요 원자재 추이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7월 6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